

원리로 배우는 발음 체계로 배우는 문법

Tomas Horak
(체코, 카렐대)

머리말 - 한국어 교육 상황 변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놀랄 만한 경제적 급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주목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도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화, 팝송, TV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가 한류로 동아시아 지역을 휩쓸어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체코에는 한류가 약한 메아리로만 울려퍼졌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 추진으로, 또 고유 문화유산 특유화의 노력으로 인해 전체적인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기업체의 대규모 진출이라는 요소가 합세하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많아졌습니다. 체코에서 제일 오래된 한국어 교육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찰스대학교만 봐도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온 학생 수는 6명남짓이고, 2006년도는 9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 50명 중에서 15명을 뽑았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이년이나 삼년만에 한 번 꼴로 학생을 뽑아왔던 관례를 깨고 올해는 벌써 삼년 연속 신입생을 뽑을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교 말고도 지방대학교 두 군데에서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프라하에는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습자 양적인 증가와 동시에 한국어 교사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학습자 중에 단순히 취미나 지적 호기심으로 배우는 차원을 넘어 높은 수준의 구사력

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실시해 온 교수법을 점검하여 새로 개발된 여러가지 방법들을 참조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됩니다.

한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최근 경향 및 한국 외에서의 적용 문제

이미혜(2007)의 주장에 따르면 1980년대 체계화하여 도입된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의사소통 교수법이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두가지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교육 목표가 비슷하겠지만¹ 교수법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실 학습에서는 전자의 지나친 반복 연습 유형보다는 후자에서 상황 속에서의 의사 소통적이고 유의미적인 학습이 중요시됩니다. 외국인 장기 거주자가 백만 명을 넘었다는 시대에 어쩌면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학습자가 우선 일상 생활 속에서 기본 소통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의사소통 교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간행된 한국어 교과서 대부분이 방증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회적 수요에 맞는 교수법이 개발되고 잘 정리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업적이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덜 된 해외에서 한국의 교육 이론과 실천방법을 그대로 이식하여 도입하자면 금방 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우선 학습의 기본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

¹ 조항록(2006)에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첫째 한국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의 의사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12페이지)"라고 목표를 설정, 제시하고 있다.

다. 특히 유럽 대학교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직접 교수법을 유일한 교수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조건상의 차이를 대략 분석해 보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모국어 습득 과정은 그 내면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외면상 모국어 화자가 해당언어 형식을 자꾸 접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을 하면서 특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개별 언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원칙과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보다 높은 인지 발달 단계에서 외국어를 현지에서 배우면 똑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언어형태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다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즉 방대한 언어 자료를 머리에 입력시켜 그 자료 속에서 규칙을 도출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같지만 다만 의식적인 심리작용(발달된 인지능력)이 개입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배우는 학습자는 교실 내 학습 대상이 되는 언어형태를 다른 상황, 다른 문맥에서 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귀납적 추리가 무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국어를 자기 나라에서 배우는 학습자는 실제 언어를 접할 기회가 비교적 적고 입력되는 자료 분량도 많지 않아서 음운, 문법 등의 규칙을 귀납적 사유를 이용해 터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역적 접근 방식**, 즉 먼저 규칙을 가르쳐 주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많은 경우에 교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현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접 교수법 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 대신 교사와 학습자가 공유하는 언어가 메타언어로 될 수 있는 간접 교수법 적용이 용이합니다. 말하자면 학습자들의 모국어가 교수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학습반에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한국의 경우처럼 간접교수법이 채택될 리가 없고 또 전형적 간접 교수법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읽기만 강조하고 다른 언어 기능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식되어 한국어 교육 방법론에서 논의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현장에서 이 방법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특히 초중급 수준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식 교수법**은 굳이 고전 문학 해독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말하기, 쓰기, 듣기 교육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입력자료의 양적인 제한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로는 학습 시간 부족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주당 5일,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을 매우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3분의 1정도 즉 1주일에 겨우 5시간 미만을 순수 언어 학습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일 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주어진 짧은 학습 시간 내에 상당한 양의 학습 내용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업 구성 단계, 즉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 등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절약형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좀 구체적인 방법은 있다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간상 또 고려해야 할 특수한 점은 보통 동일한 수업이 일 주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습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연습, 생성 단계 상당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 줄이고 학습자의 몫으로 남겨 자율 학습에 의존해야 되니까 복습활동은 지난 번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해당 주제를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에 대해 교사한테 일종의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교수법 채택 문제에 있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한국하고 해외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학습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희망하는 자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특히 유럽 내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 되는 대학교에서 보통 한국말을 한국학 일부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학습자들은 어문학이든 기타 한국과 관련된 전공이든 간에 언어 자체가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다른 인문·사회 과학 분야 연구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문법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구어보다는 문어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역시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졸업생들의 취직을 고려해서라도 의사소통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처하게 되지도 않는 일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능력, 즉 **통·번역 기술**을 애초부터 습득시켜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한국과 본국, 한국인과 자기 나라 사람들 간에 중계자 역할을 해야 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의사소통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더라도 대학교 교육과정 성격상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되도록이면 빨리 한국어 교과서를 떼고 원문 자료를 해독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문자 언어 중심**으로 수업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유창성보다 정확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문제점들은 다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지 그것을 여기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앞서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어 교육을 말할 때 우선 **현지 한국어 교육** (즉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작업)과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구별해서 양자에 적합하고 알맞은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학습 환경, 학습자 구성, 학습 목표 등 많은 요소가 다른 것만큼 교수방법도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현지 한국어 교육에서 자연히 의사소통 직접 교수법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해외에서는, 더 정확히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온 번역식 간접 교수법은 앞으로도 나름대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대학 교육 현장에서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시사한 바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최근에 와서 대학 교육 기관들이 서로 상반되고도 충족해야 할 사회적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한 학문적 추구라는 대학의 본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졸업생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에 이를 반영한다면 폭넓은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도로 복잡한 텍스트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동시에 자기 나라에 진출한 한국 교민들하고 지장없이 의사소통하여 중계자로서 통·번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극히 제한된 현실적인 조건 하에 이렇게 상이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번역식 교수법하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의사소통 교수법을 접목시키고 양 방법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해 내는 것이 어떤가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지만 양자간 절충을 모색하기 보다는 두 가지 교수법을 병행적으로 실시하는 소위 **복합적 교수법**을 설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적 교수법이란 물론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현재도 많은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지인 교사가 한국인 교사와 함께 가르치는 경우에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교수법이 방법론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이론적 뒷받침을 받으면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각 교수법의 특수성을 인식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 기능에 있어서 한국인 교사가 직접 교수법을 이용해 주로 표현 영역(즉 말하기, 쓰기)에 집중하고 그 대신 현지인 교사가 번역식 간접 교수법을 가지고 이해 영역 (즉 듣기, 읽기)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도 따로 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인 교사가 한국에서 많이 발전한 의사소통적 교수법을 잘 이용하면 되고 현지인 교사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전통적인 번역식 교수법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방법을 계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한국 쪽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격있는 한국어 교사를 해외로 많이 파견해 주면 현지인 교사와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한국어 교사로서 간접 교수법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 발음과 문법 교육의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로 배우는 발음

대개 모국어 화자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먼저 음성 언어 형태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뜻을 배웁니다. 글은 학교에 들어와서야 배우는데 대부분 언어 형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적는 방법 즉 맞춤법만 배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씁니다]라는 형태를 "있습니다"로, [방남회]라는 형태를 "박람회"라고 써야 된다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다릅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는 학습자는 그나마 음성형태 범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읽기 수업 때 "있습니다"라는 단어를 처음 보더라도 여기저기서 흔히 들어본 [씁니다]어미와 연결만 시키면 읽는 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니면 TV에

서 [방남회 유치]라는 단어 연결을 들었다가 나중에 신문에서 "박람회 유치"라고 써 있는 것을 볼 때도 기억을 더듬어 보고 [방남회]를 떠올려서 올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 학습자는 입력 부족 탓으로 대개 음성으로 들은 형태를 잘 못 받아쓰고 모르는 단어를 먼저 문자로 접할 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철자법은 임의로 정하는 규칙이라 한국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고 외국인도 조금만 노력하면 비교적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음운체계는 언어마다 달라서 습득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체코어 화자 입장에서 한국어에는 [ㄱ], [ㅋ], [ㆁ], [ㄴ], [ㄷ]와 같이 구별하기 어려운 낯선 음소들이 많고 또 두음법칙을 비롯하여 자음군 단순화, 불파음 현상, 비음화, 설측음화, 모음조화 등과 같은 체코어에서 일어나지 않은 현상들이 많아 전부를 터득하기가 어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어려우냐면 음운 체계가 벌써 이른 나이에 머릿속에 고정화되고 나중에 제2 제3 외국어를 배우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Pinker의 인용에 따르면 벌써 6달 아이가 여러 음소를 하나의 음운으로 묶기 시작하고 10달이 지나면 모국어 음운이 아닌 말소리 차이를 무시하게 됩니다.²

대학생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 상당수를 텍스트를 통해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문자 형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개별적 언어 형태를 많이 읽게 하고 반복 연습 시키고 잘못된 발음을 매번 고쳐서 음운 규칙을 귀납적 추리 방법에 의해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청각구두식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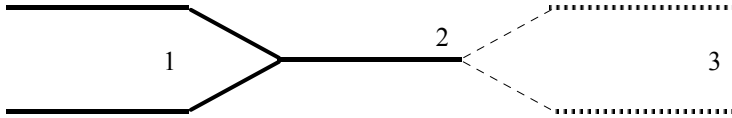
² Pinker, S. (1995), p.264

가 일어나는 몇 개 대표적인 언어 형태를 제시해서 학습자가 이를 유추법으로 비슷한 유의 언어 형태에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라"라는 단어를 [실라]로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면 "니은"이 "리을"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단어도 (전라, 한라산 등) 같은 식으로 읽을 것입니다. 위의 방법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발음 및 음운 규칙을 반복 연습 시키고 오류 수정을 통해 스스로 습득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학습자 머릿속에 박혀 있는 모국어 음운 체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므로 오랜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감이 듭니다. 제한된 학습 시간 조건 하에 추천할 만한 것으로는 철저히 의식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학습자에게 좀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되니까 앞의 방법과는 달리 초보자 단계에서 목적 언어로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학습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언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접근 방법이란 이론적인 음성학, 음운론 지식을 가르쳐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나서 이를 연역적 추리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교사의 발음을 따라 하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조음 음성학 지식, 즉 조음 위치와 방법, 그에 따른 음성 분류 및 음성간의 관계를 설명하여 아주 의식적인 발음 연습을 시킵니다. 발음 기관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을 빨리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체코 학생들은 한국어에서 원래 파열음인 받침을 그냥 파열음으로 발음하는데 불파음 현상이 무엇인지 한 번 제대로 설명하면 (그림 1) 불파음 발음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그림 1. - 발음 단계와 불파음 현상

1. 발음 기관이 발음 위치로 이동
2. 발음 위치에서 상태 유지
3. 열림 단계, 다른 위치로 이동 (실현되지 않음)



단순히 표준 발음을 따라하게만 하면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듣지 못하고 잘 틀립니다. 경음(ㄲ, ㅋ, ㆁ, ㆁ 등)도 조음 방법을 잘 설명하면 들을 땐 평음과 구별이 잘 안 되더라도 말할 땐 발음이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체코어에 개별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중 소리[ɔ]도 발음 설명을 안하면 자주 [ŋ]대신 [ng]로 나옵니다.

그런데 간접 교수법에 입각한 발음 교육은 개별 음성 발음 연습에보다 음운론 현상 학습에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발음은 청각 감각만 밝으면 단순한 모방만으로 익힐 수가 있는데 각 언어의 독특한 음운 규칙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기본 원리를 이해 못하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의 음운변화가 너무 복잡하다고 불평해 처음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명하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물론 학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순수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음운 변화의 기본 원리는 발음노력의 최소화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불파음 현상도 일종의 공기 절약 전략인데 발음은 편하지만 불파음으로 인해 자음들의 음운 자질이 상실되므로 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조음 음성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소위 중화 현상이란 같은 계열의 자음(즉 발음 위치가 비슷한 자음)이 똑 같은 방법으로 발음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같은 음으로 실현된다고 설명만 하면 표2를 외우지 않아도 금방 배웁니다.

표2 - 자음 중화

순음	ㅂ, ㅃ, ㅍ, ㅅ → -p (불파열음)
치조/구개음	ㄷ, ㅌ, ㅈ, ㅊ, ㅌ, ㅊ → -t
연구개음	ㄱ, ㅋ, ㆁ, ㆁ, ㆁ → -k

비음화도 외국인에게 낯선 현상이지만 앞 음의 장애가 유지되면서 뒤에 올 비음을 미리 떠올림으로써 비강 통로를 열린 것으로 생겼다고 설명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참고로 허용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두 개 자음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를 도출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제시합니다³.

자음동화도 역시 학문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음을 "공명도(共鳴度)"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항상 첫째 음이 공명도가 높거나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C1 \geq C2$). 그렇지 않으면 낮은 음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거나 그게 모자라면 ("ㄱ"이나 "ㄴ"이 "ㄷ"과 만날 경우) 높은 음이 한 단계 내려가야 합니다.

예:

"밥만"할 때 낮은 "ㄴ"이 한 단계("ㄷ")으로 올라가고 ([밤만]).

"독립"할 때 "ㄱ"이 "ㅇ"으로 올라가지만 그래도 "ㄷ"보다 낮기 때문에 "ㄷ"이 "ㄴ"으로 내려갑니다 ([동닙]).

"함락" - "ㄷ"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ㄷ"이 내려가야 합니다 ([함낙]).

발음 위치 및 방법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면 모음 동화 현상도

³ 제1차 동유럽 한국어 교육자 연수 때 강의 내용 (연수 자료집 참조)

잘 설명됩니다. 모음은 발음 위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변동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아비"가 "애비"로 바뀌는 현상⁴) 자음은 그에 비해 발음 위치가 확실함으로써 동화가 일어나더라도 발음 방법만 바뀔 뿐 (비음화, 설측음화)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원리로 배우는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몇 가지 구체적 예를 제시해 보았는데 제대로 체계화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정리해 온 것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더니 반응이 괜찮고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모르는 단어를 접할 때도 원칙을 적용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의식적으로 했다가 이제는 좀 습관이 돼서 발음이 자연스럽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간접 교수법의 성공 사례로 생각됩니다.

체계로 배우는 문법

이미 수 십년 전에 Jespersen이 제의한 것처럼 문법은 언어의 일반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접근 방법으로는 주어진 형태의 내적 의미를 탐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형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⁵ 이런 분류 방법에 따르면 문장 분석으로 얻어진 접사, 어미, 조사의 문법적 의미·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문법 범주인 시상, 경어법 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지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2"은 이런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체계 편, 용법 편).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는 형태로부터 의미/기능으로의 방향이

⁴ 표준 한국어가 음성자리 이동을 허용하지 않음

⁵ Jespersen (1924): ...we take a form as given and then inquire into its meaning or function...[or] ...we take the meaning or function and ask how that is expressed in form. pp. 39-40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문맥속에서의 문형을 제시하고 의미/기능/용법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내재화하여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배운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언어체계의 전체상을 간과할 위험이 없습니다. 또 체계속에서 성립되지 않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규칙들은 기억되기 어려운 것도 단점입니다. 일단 의사소통 교수법에 맞는데다가 도입 순서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주로 한국인 교사들이 택할 문법 교육 방법입니다.

반면에 문법적 의미/기능에서 표현 쪽으로의 방향은 번역식 간접 교수법에서 십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체계를 세워 학습자에게 제시해서 수직 수평으로 서로 연결된 범주들을 가르침으로써 문법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양한 발화를 생성하도록 도와 줍니다. 다만 문맥 밖에서의 문장을 주로 다루고 있어 화용론 측면에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문법 설명의 이해는 때로 추상적 사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에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또 초중급 단계에서 문법설명을 학습자가 잘 이해하는 언어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한국인 교사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 교사가 두 가지 접근 방향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동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수업을 나누어서 회화 시간에는 문형 위주로, 문법 시간에는 범주/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인 교사로서 주로 둘째 접근 방법에 대해 몇 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으나 도입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 전통적인 품사범주를 위주로 했습니다. 즉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체언에 붙는 조사, 용언, 용언 어미와 관련된 문법 범주 등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

까 체언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용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예 품사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문장/문법적 기능이 더 정확히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 잘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즉 문장 핵심 성분인 서술어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구성요소로 되는 동사, 형용사와 어미를 언급하여, 활용을 설명하며 그 다음에 주어/목적어와 그 구실을 수행하는 체언과 격조사 등 서서히 문장을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관련 예문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범주 위주의 서술에서 처음 도입된 명사 품사 내 의존명사를 설명하려면 꽤 복잡한 예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서술어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문장을 확장해 가면 학습자들이 어려워지는 문장 구조를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 교수법에 입각한 문법 수업 구성 단계에 대해 몇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듭 강조했지만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문제점 중 하나가 학습 시간 제한입니다. 모든 수업이 학습자들의 철저한 이해, 습득, 완전한 소화를 희생하더라도 비교적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상 충분한 여유를 주고 전형적 구성 즉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 등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맡은 수업 구성을 대략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단계로는 주제를 학습자 모국어로 제시하여 설명해 버립니다. 회화 시간에는 문형을 가지고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문법 시간에는 문법범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현 형태들을 제시합니다. 가능한 한 원리와 체계를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예문을 제시합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장뿐만 아니라 말뭉치, 인터넷을 검색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문장을 찾아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예문을 번역하게 함으로써 주제가 된 문형이나 문법 범주를 잘 이해했는가 또 체코어에서 대응하는 표

현을 찾을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생성 유도 활동으로 체코어로 주어진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충분히 연습하지 못 하고 완전 마무리는 자율학습과 숙제로 남습니다. 그 대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제 설명 (원리, 체계 강조)
2. 예문 제시 (모국어로 번역)
3. 생성 연습 (주어진 내용 한국어로 번역)

결론

위에서 지적한 것들은 정리가 안 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차원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크게 발전해 가는 것 못지않게 해외 한국어 교육도 앞으로 갈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나라마다 한국어 교육자 수가 보통 몇 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표에서 말씀하고자 한 내용 중 하나는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있어서 한국인 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인 교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인 교사와 잘만 협력하면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 Brown, H.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George Allen & Unwin
- Pucek, V.(2005): Gramatika korejského jazyka (한국어문법), Karolinum

- Pinker, S. (1995): The language instinct, Penguin books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미혜(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최근 경향과 실제, 한국어 교육자 현지 워크숍
- 이익섭(2001): 국어학 개설, 학연사
- 방성원(2005): 한국어 문법 교육, in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 조항록(2006): 한국어 교육학, in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 허용(2006): 한국어 발음 교육, in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